

## 협회의 주인은 생산자인 낙농육우 농가



김 상 지  
농축임업신문 기자

현재 국내 낙농산업은 UR협상, WTO출범 등으로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생산자조직인 협회의 역할과 활동방향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본인은 「협회의 활동과 나아갈 길」이란 주제를 낙농육우협회의 사업목표에 초점을 맞춰 보았다.

첫째, 협회의 활동중 “대외적 활동 강화로 낙농육우산업 현안과제 해결 방안 마련”은 가장 높이 살만하다.

지난해 협회는 낙농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 축산물가공업무일원화 활동, 체화분유소진추구 활동, 한우가격안정을 위한 활동, 한우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보건복지부 만행규탄대회, 젖소가격안정추진 등 등 유달리 복잡하고 예민한 낙농육

우산업의 문제점을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해결해왔다.

그 결과 육우전문매장설립을 위한 농림부의 지원, 젖소수소 지육수매, 유가공협회·농림부·축협공동의 TV우유홍보실시등의 성과를 얻었다.

둘째,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으로 낙농육우산업 안정 여건마련”을 위한 협회의 활동역시 우수하다.

협회는 지난해 낙진법 개정을 위해 국회방문활동과 함께 여·야당 총재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낙진법 개정 법률안 공청회에 공술인으로 참석하는등 법개정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지역의 강한 반발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로 지난해 국회임기가 끝났으나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움직임이 보여 협회의 노력에 대한 열매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셋째, “품질향상 및 차별화로 우리 우유와 쇠고기의 소비촉진 및 경쟁력향상”을 위한 협회의 활동은 미비하다.

그간 협회는 업무량에 비해 적은 인원과 낙농육우의 현안과제 해결에 중점을 둔 결과 우유·쇠고기에 대한 소비촉진은 물론 경쟁력향상을 위한 활동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유의 홍보는 업체에서

각 자사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상품홍보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유제품수입자유화로 낙농·유가공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에서는 보다 고차원의 소비확대를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낙농자조금제도의 법제화추진을 비롯하여 유업체와의 공동으로 「광고위원회」같은 조직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쇠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도 마찬가지다.

현재 양돈·양계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요리교실등의 성격과 비슷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육우고기·요리방법등의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협회는 이사회위원의 활동에서 낙농육우·한우 등의 「분과위」를 조직, 좀더 전문화된 활동으로 낙농·육우산업에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협회의 주인은 생산자인 낙농육우농가다.

낙농기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회원농가의 확보와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지금보다 더 큰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제는 낙농육우농가가 협회를 구심체로 일치단합하여 위상과 조직역량을 강화시키는것만이 수입개방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㉞